

30년의 역량을 모아 300년 후의 에너지 미래를 위하여

김 종 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을 발휘한다면,
원전 도입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여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 박종구 차관님, 한국전력공사 문호 부사장님과 유리 소콜로프 IAEA 사무차장님, 데이비드 파 INPO 부회장님, 그리고 원자력계 선배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원자력 발전 30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0년 전 우리나라는 원전을 도입하기엔 자본, 기술,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 선배들은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원전의 불을 지폈습니다. 초창기에는 시련과 역경을 땀과 열정으로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 특히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오늘의 원자력 발전이 있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묵묵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원자력 발전이 걸어진 30년의 연륜은 결코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좌절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초기엔 우리 땅에서 우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에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하는 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우리는 기술 축적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10년 계획의 국가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 계획을 수립한 뒤,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난 1995년에는 95%의 기술 자립을 계획대로 성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 한국표준형원전의 효시인 영광 3, 4호기를 준공하였고, 뒤이어 후속기 한국표준형원전을 반복 건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3세대 원전인 APR1400 신고리 3, 4호기를 개발,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국내 원전의 운영 실적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8년 연속 90%대의 원전 이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자력 발전은 저렴하고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첨단 산업이라는 특성상 다른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원자력계 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며,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는 다시금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

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웃도는 고유가와 자원 패권주의, 지구 온난화 현상 등의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을 발휘한다면, 원전 도입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여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자력계 최대의 현안 사업이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부지가 선정되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지난해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착공식을 가졌고, 금년 초에는 고리 1호기가 수많은 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합의를 얻어 발전을 재개함으로써 향후 후속 호기들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안전 최우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원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경영을 함으로써 ‘국민의 사랑 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역량과 저력을 모아 앞으로 30년, 더 나아가 300년 뒤의 에너지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있기까지 원자력 발전과 함께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승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